

상하이엑스포 6개월 대장정 마무리

# 상하이 성공, 여수의 성공으로

## 189개국 관람객 7271만명 사상 최대 한국관에 쏠린 이목 여수로 이어져야

전 세계인의 경제올림픽인 상하이 엑스포가 지난달 31일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189개 국가와 5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관람객이 7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159년 엑스포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면서 상하이로 집중된 전 세계인의 이목이 2012년 여수엑스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 개최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하이엑스포는 지난달 3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 등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갖고 6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중국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엑스포를 통해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점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다.

엑스포 수입이 입장료 판매, 식당 수입, 상품판매, 기업찬조금 등으로 200억위안(3조4000억원)에 달해 행사준비 비용 286억위안과 부대시설 투자비용 3000억~4000억 위안에 크게 못미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효과와 관광수입, 국가홍보 등의 효과를 감안하면 그런 큰 손해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상하이엑스포는 특히 한류엑스포

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을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은 국가관과 기업연합관, 서울시관 등 3개의 전시관을 운영, 가장 적극적으로 엑스포에 참가한 나라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엑스포를 선행 모델로 삼아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상하이엑스포로 여수박람회

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টে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하이엑스포에 비해 개최 규모가 작고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점을 고려해 상하이와 비슷한 관람형이 아닌,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한국 및 여수의 이미지를 알리고 개선하는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도 '바다'를 중심으로 한 최초의 박람회로 차별화를 꾀하면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에 맞게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고 문화를 아우르는 신해양복

색객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조환익 코트라 사장은 "이번 상하이 엑스포에 한국관, 기업연합관, 서울시관이 함께 참가해 중국인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및 상품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이번 엑스포에 집중된 세계인의 이목이 2012년 여수엑스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즐겁고, 신나고 유익하고 재미있으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도우미들이 폐막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725만명... 한국관 역대최다 관람객 유치 경제적 효과 7조원

코트라(KOTRA)는 지난달 31일 폐막한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에 역대 최고인 725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한국관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경제적 효과가 약 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코트라에 따르면 상하이 엑스포가 진행됐던 184일간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은 하루 평균 4만237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관 운영 기관인 코트라가 애초 목표로 했던 600만명을 무려 125만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역대 엑

스포 한국관 관람객 기록으로는 최고치이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05년 일본 아이치엑스포 때의 350만명이다.

코트라는 한글 자모로 연출한 한국관이 개막 전부터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소문난데다 1층에서 매시간 진행한 한국 전통 공연,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꾸민 각종 전시물 등이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은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관인 한국관 외에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한 기업연

합관과 서울시관까지 합치면 무려 1천600만명의 중국 관람객들을 유치함으로써 중국내 한류(韓流)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관을 찾은 국내외 주요 인사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리커창 중국 상무 부총리, 리창춘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발디스 자틀러스 라트비아 대통령, 이브 레테를 벨기에 수상,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미르코 츠벳코비치 세르비아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전 총

리 등이다.

코트라는 이날 '상하이 엑스포의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 및 경제적 가치'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관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경제적 효과가 약 7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코트라가 가톨릭대 시스템스 이네믹스 연구팀의 자문을 받아 9~10월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을 참관한 497명과 비참관자 1186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설문조사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연합뉴스



이산가족 상봉행사 1차 둘째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공동중식에서 북측 리재선씨가 남측 동생 이천룡(오른쪽)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깨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 “꿈에 보던 너를...” “제사 지냈는데...”

### 이산가족 533명 금강산서 60년만에 눈물의 상봉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13개월 만에 다시 이뤄져, 60여년간 헤어져 있던 이산가족 533명이 감격적으로 재회했다. 북측 상봉신청자 97명과 남측 가족 436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내 행사장에서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나 서로를 부둥켜안고 분단의 아픔을 달랬다.

상봉 행사장은 60년간 헤어져 있던 양측 가족들이 만나는 순간 '눈물바다'로 변했다. 먼저 행사장에 들어가 가족별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측 가족들은 오후 3시10분께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가 울려 퍼지면서 북측 상봉신청자들이 들어서자 꿈에 그리던 혈육의 이름을 앞다뉘 부르기 시작했다.

북측 최고령자인 국군 출신의 리종렬(90)씨는 남측의 아들 민관(61)씨를 만나자 부둥켜안고 "민관아- 민관아-"라고 이름만 부르

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생후 100일 무렵 아버지가 국군에 입대하면서 헤어지게 됐다는 민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지금껏 제사도 지내왔어요"라고 울부짖으며 리씨를 마주 안은 뒤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데..."라며 통탄의 눈물을 쏟아냈다.

남북을 통틀어 최고령인 남측의 김례정(96)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딸 우정혜(71)씨가 다가오자 "꿈에만 보던 너를 이렇게..."라며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전날 단체상봉에 이어 31일 오전 개별상봉을 통해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진 이산가족들은 60년 만의 만남으로 인한 어색함을 뒤로한 채 '이야기꽃'을 피우며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북측 오빠 최의식(70)씨와 만난 남측 동생 최예식씨는 "처음에는

어색해서 오빠도 말씀을 잘 안 하겠다"면서 "핏줄이라 당기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할 이야기가 어찌나 많은지..."라고 재회의 감격을 전했다.

이들 이산가족은 31일 오전 9시 '개별 상봉'(가족 단위 비공개), 낮 12시 '공동 점심식사', 오후 4시 '단체 상봉'(가족 단위 공개)으로 회포를 풀었고, 셋째 날인 1일에는 오전 9시 '자별 상봉'(가족단위 공개)을 끝으로 아쉬운 '2박3일' 일정의 재회를 마무리한다.

다음달 3일에는 남측의 상봉 신청자 96명이 역시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에 가 북측 가족 207명을 만난다.

지난달 9월 26일~10월 1일 이산가족 상봉 이후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돌연 제안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 전사처리 6·25 참전 국군 출신 4명 南가족 재회

전사자로 처리됐던 6·25 참전 국군 4명이 30일 북측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단 이번 상봉에 확인된 4명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참전 국군이 북한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나 북한은 현재 북에 거주하는 국군 출

신을 '전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30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4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국군으로 참전했으나 전쟁 중 행방불명돼 1957년 우리 정부에 의해 일괄 전사처리됐다.

그러나 이번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북측이 보내온 최종 상봉 후보자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했고, 우리 정부가 남측에 있는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국군 출신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국방부 병적기록부에도 이들의 병적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우리 아이, 영어 잘해야 하는데...  
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11년 미국 교환학생 설명회



## COME & SEE

KoAm Education Alliance(한미교육연맹)는 '행복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콜로라도 주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미국 비영리재단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 교육/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의 '국제화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초·4·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Student Exchange Program, 예비 초등교사들에게 미국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경험을 얻게 하는 Student Teacher Internship Program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1년 미국 교환학생 설명회 안내

일 정	장 소
11월 3일(수) 11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206호 (광주광역시 서구)
11월 4일(목) 10시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소강당 (전남 광양시 중동)
11월 9일(화) 11시	한미교육연맹 교육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한미교육연맹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 대상 : 초 3 ~ 고 2
- 기간 : 1월 출발 ~12월 귀국 (약 1년)
- 지역 : 미국 - 콜로라도 / 네브라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아이오와 / 미주리
- 학교 : 우수한 종교계 사립학교
- 숙박 : 학교장 추천받은 사립학교 재학생 및 학교 교직원 가정
- 관리 : 호스트 가정과 한인교포 지역관리자

### 한미교육연맹 프로그램 특징

- 미국 501(C)(3) 비영리 교육문화교류 재단 직영 (본사 :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 완벽한 영어몰입 환경 구축 (한국인 거의 없는 지역, 1번 1명 배정)
- 매우 우수한 수준의 사립학교만 선발 (미국 교육통계센터 자료 분석 및 현장 점검)
- 교육철학이 투철한 중산층 호스트가정 엄격 선발 (자원봉사 개념)
-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체계 (한미간 문화, 언어, 제도에 익숙한 한인교포 지역관리자의 철저한 관리)
- 귀국 후 다양한 클럽활동 진행 (영어유지력, 영어 동화집제작, 음악회, 봉사활동 등)
- KoAm의 교육방식이 있는 프로그램 (균형잡힌 생활 및 전체적인 조화 강조)
- 2006년~현재까지 300명 이상 참가

■ 사전예약 문의 : 02-576-0852

■ 홈페이지 : www.koamedu.or.kr

한미교육연맹